

미디어와 세상

5주차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고 쓰기

2025년 1학기

신문방송학과 엄호동

강의 주차	강의 제목	수업 유형	평가
1주차 (03월 10일)	강의 계획 및 설명	강의 설명	출석 15% / 참여 10%
2주차 (03월 17일)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이론 강의	“
3주차 (03월 24일)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이론, 토론, 실습	“
4주차 (03월 31일)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등에 대한 이해	“	“
5주차 (04월 07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	“
6주차 (04월 14일)	미디어 리터러시 알아보기 등	“	“
7주차 (04월 21일)	소셜 미디어 알아보기 1	“	“
8주차 (04월 28일)	중간고사	-	30%
9주차 (05월 05일)	소셜 미디어 알아보기 2	이론, 토론, 실습	출석 15%, 참여 10%
10주차 (05월 12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1	“	“
11주차 (05월 19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2	“	“
12주차 (05월 26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3	“	“
13주차 (06월 02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4	“	“
14주차 (06월 09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5	“	“
15주차 (06월 16일)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대한 종합 토론	종합 토론	과제 등 15%
16주차 (06월 23일)	기말고사	-	30%



Jaewoogy.com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고 쓰기

ONE

박영흠 외, 2022.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언론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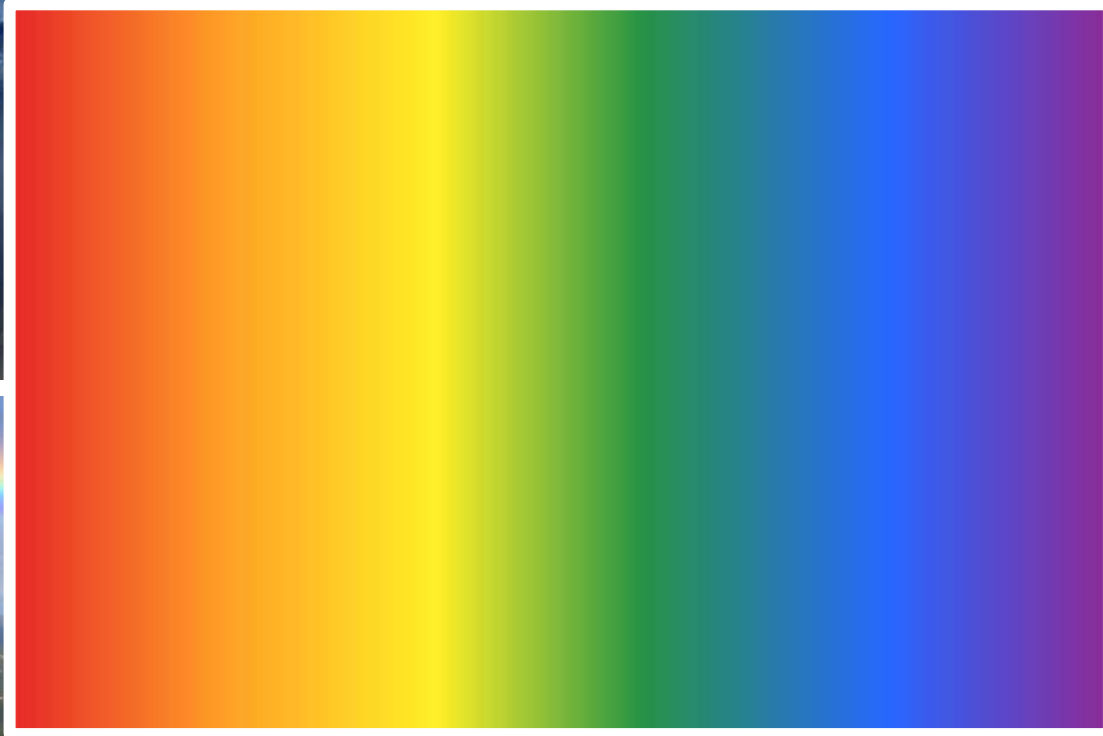
이미지의 배반, 르네 마그리트, 1929년, 60x45cm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그려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모순적 글귀를 붙여 놓았다.

그림 속 파이프는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재현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

재현이 부지불식간에 지시 대상을 대신하며 원본의 부재를 은폐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 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미디어 재현의 논리

재현은 지시 대상과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재현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재현만을 보고 실재가 재현과 똑같은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재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결코 같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의 인지 능력과 표현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그리지만 사실 무지개는 일곱 색깔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육안으로 정확히 분간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 무지개는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재현에 익숙해진 나머지 현실 속 진짜 무지개를 볼 때도 일곱 색깔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재현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현하는 사람의 주관과 의도가 개입된다.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감독의 영화 <라쇼몽(羅生門)>은 ‘객관적 진실이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같은 사건을 함께 경험했지만, 사건을 재현하는 이들의 증언 내용은 천지 차이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 관점은 달라진다. 똑같은 파업을 바라보더라도 회사 사장과 직원의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재현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각 관점 사이의 치열한 투쟁이 있을 뿐 어느 한 관점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 진실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https://www.youtube.com/watch?v=IN7H4abnU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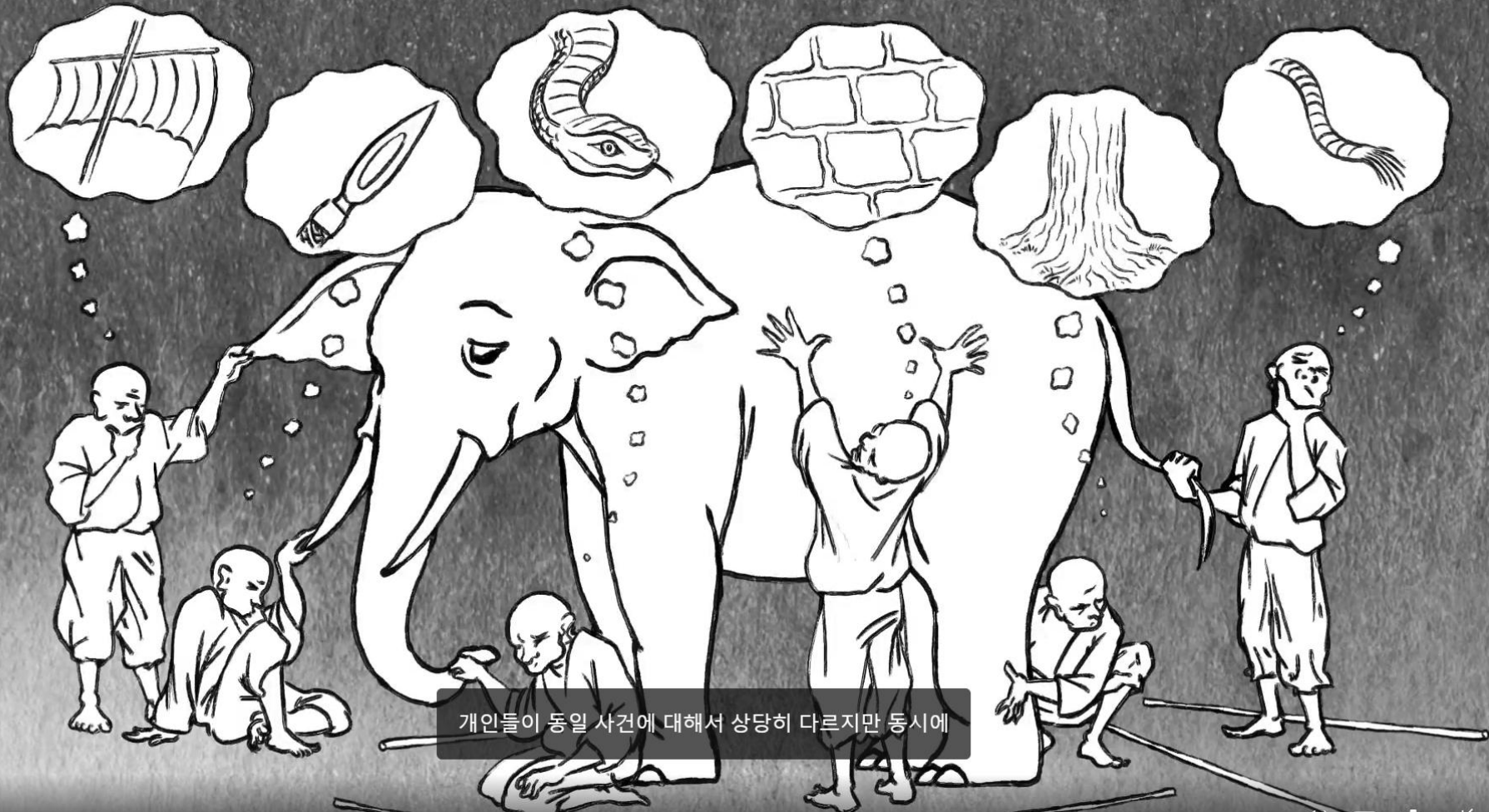
미디어 재현의 논리

재현 생산자는 필연적으로 ‘선택’과 ‘배열’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어떤 재현도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하고, 또 그걸 아무렇게나 늘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나름의 질서대로 배열한다. 이 선택과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현의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재현 생산자가 선택과 배열을 조절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생산자의 의도대로 재현 대상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래서 재현은 사회적 인식과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의 현장이다.

뉴스가 파업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에 따라 파업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을 그려 내는 방식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미디어 재현의 논리

권력은 재현이 자신에게 유리해지도록 재현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선택과 배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정치인은 일부러 연탄을 나르거나 배식을 돕는 봉사 장면을 연출하고 기업은 많은 돈을 쓰는 홍보 활동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은 재현에 개입할 수단을 갖기 어렵다. 미디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묘사보다 부정적 묘사가 많은 이유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속 재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현실에 대한 판단을 미디어에 의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현을 생산한 사람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어 버린다.

재현으로 가득 찬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재현의 필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재현에 숨겨진 의도와 생산자의 개입을 파악하는 비판적 독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대한민국 새정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일보

대한민국 새정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일, 지소미아·서를외교 복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 연세생물건강의 한해수익을 전액은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계단만 보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연세빠건강 콘드로이친

연세대학교 연세생물건강의 연구 노력으로
자신 있게 한은 연세빠건강 콘드로이친

5개 대학의 연세빠건강 연구
4주만 복용하면 \$9,900
연세빠건강 콘드로이친



[illegible]

한일교

한일교는 한국과 일본의 교섭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한일교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한일교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일교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한일교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후,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후,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양국 간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송금 두 시간 전에 '북' 괴물 ICBM 도발

북한은 대통령 송금 두 시간 전에 '북' 괴물 ICBM 도발했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양국은 이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대통령 송금 두 시간 전에 '북' 괴물 ICBM 도발했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양국은 이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력 갈라진 양파를, 바다 드러낸 저수지-바실 물도 없다

북한은 핵력 갈라진 양파를, 바다 드러낸 저수지-바실 물도 없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양국은 이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력 갈라진 양파를, 바다 드러낸 저수지-바실 물도 없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양국은 이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에 생활자금 필요하시지요?

3년만 원 투자시 배당 500원 확정형연금 지급

노후에 생활자금 필요하시지요? 3년만 원 투자시 배당 500원 확정형연금 지급. 이는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다.

노후에 생활자금 필요하시지요? 3년만 원 투자시 배당 500원 확정형연금 지급. 이는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다.

경 가평 제2농장(23,504㎡) 인허가 완료

39년 전을 지킨 일대산양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경 가평 제2농장(23,504㎡) 인허가 완료. 이는 농장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농장은 다양한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 가평 제2농장(23,504㎡) 인허가 완료. 이는 농장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농장은 다양한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2023년 3월 17일 조간신문 헤드라인 비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경제안보대화' 창설



윤석열 대통령과 프톰 키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이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프톰 키시다 총리. (사진: 연합뉴스)

【서울 17일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지소미아(지소이아) 정상화 선언을 하고, '경제안보대화' 창설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경제안보대화' 창설을 합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尹 '주60시간 이상 무려' -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되나

【서울 17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수정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임기 첫 국무회의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최대 최대 규모

국가산업단지

160곳 선정

나노·반도체, 무후량



서를외교 복원한 韓·日 정상-“새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톰 키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이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프톰 키시다 총리. (사진: 연합뉴스)

【서울 17일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지소미아(지소이아) 정상화 선언을 하고, '경제안보대화' 창설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경제안보대화' 창설을 합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北, KCBM 도발-한·미·일에 무역 세력

【서울 17일 연합뉴스】 북한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CBM 도발을 비난하고, 한·미·일에 무역 세력을 비난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KCBM 도발을 비난하고, 한·미·일에 무역 세력을 비난하고, 이를 통해 한·미·일에 무역 세력을 비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 정부의 임기 첫 국무회의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북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다음 세대로
어여지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프톰 키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이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프톰 키시다 총리. (사진: 연합뉴스)

【서울 17일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지소미아(지소이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고,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고, '경제안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尹 '연장근로제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려'

【서울 17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장근로제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려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연장근로제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임기 첫 국무회의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연세대학교 연세생물건강의 한해수익을 전액 장학사업에 지원합니다

게단한 보은 한숨이 나오십니까?

연세배건강 콘드로이친

연세대학교 연세생물건강의 연구 노력으로
자신 있게 만든 연세배건강 콘드로이친

미디어 재현의 논리

2023년 3월 17일 조간신문 헤드라인 비교



한·일 정상 “미래로”... 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로”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끝내 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서툰외교 재개 합의”

한·일 정상회담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새 시대 열자”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서툰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일본이 '징용 사과'를 계승하고, 한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로 무리”-상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상한제를 제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근로시간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재검토를 약속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재조정 추진

정세균 총리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재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선한 사람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정세균 총리가 “선한 사람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발언을 통해, 선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정세균 총리가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발언을 통해, 삶의 철학에 대해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친기로 폭탄 토 폐작폐작

정세균 총리가 “친기로 폭탄 토 폐작폐작”이라는 발언을 통해, 친척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승파 참살 중심상권 2억대

정세균 총리가 “승파 참살 중심상권 2억대”라는 발언을 통해,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상가 특별분양

정세균 총리가 “상가 특별분양”이라는 발언을 통해, 상가 분양에 대해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1668-2267

정세균 총리가 “1668-2267”이라는 발언을 통해, 전화번호를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오해를 풀고,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에 쌓여온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여온 미래를 열었다.”

미디어 재현의 논리

경향신문

2023년 03월 18일
23면 (오피니언)

가해자에 '면죄부' 준 윤 대통령, 외교참사 어찌 책임질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은 너무 많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 당시 불법적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국이 성과라고 발표한 조치들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전 전기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현 단계에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일본은 전기기업의 배상 참여를 약속하지도,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윤 대통령 결정을 두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일본인 57%가 한국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한 비율의 한국인들이 이 해법을 두고 '굴욕적'이라며 분노하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속이고 들어온 윤 대통령을 향해 더 많은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광부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2015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 합의이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많은 피해자들이 용하지 않아 무력화됐는데, 정부가 일본 요구를 들 주겠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도 꺼냈다. 기하라 부장관은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논의된 바

매일경제

2023년 03월 18일
23면 (오피니언)

한일관계 정상화가 '굴종외교'라는 野,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여론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며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공격했고,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 노릇을 했다"고 조롱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피해자 배상'이 빠진 것도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거둔 안보·경제 성과마저 폄하해선 안 된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VS.

동일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재현(평가)의 사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없었으면 결코 풀지 못했을 사안들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런 성과는 모조리 외면한 채 반일 선동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한일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굴종'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인지 묻고 싶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같은 국제 정세와 복합위기는 외면한 채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만 외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극일외교'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 국회 제1당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18.2*9.7)cm

(14.5*14.9)cm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심은 ‘다르게 보기’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보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비판적 독해의 예시로 미디어의 사회적 소수자 재현에 숨어 있는 문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미디어가 소수자를 재현할 때 자주 드러내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정형성(stereotype) 속에 **소수자를 억지로 끼워 넣어 ‘타자화’ 하고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는 ‘왜곡 재현(misrepresentation)’** 문제고, 두 번째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수자의 비율이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과소 재현(underrepresentation)’** 문제다(박지훈 · 이진, 2013).

타자화(他者化)는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의 총집합이다. 이는 사회학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으며 철학, 역사, 정치학 등에서의 적용도 가능하다.

타자화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대상의 이질적인 면을 부각시켜 공동체에서 소외되게끔 만들고 대상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아동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는 뽀로로의 친구 ‘루피’가 등장한다.

여성인 루피는 잘 울거나 빠치고 마을에서 요리를 도맡아 한다. 운동에 소질이 없고 공주 놀이나 뜨개질을 좋아한다. 집에 고장 난 물건이 있으면 남성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늘 외모에 신경을 쓰며 다이어트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규정된 고전적 여성성과 성 역할 고정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접한 어린이들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고정 관념을 무의식 중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위대한언니

사실 넷플릭스에서 흥행한 한국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https://www.youtube.com/watch?v=gslcfHOULZI>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그간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대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장애인이 주인공인 콘텐츠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불행을 전시하거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인간 승리 내러티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극 중에서 주인공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일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 나간다.

물론 이 드라마의 재현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장애의 현실에 무지한 수용자들은 이런 우영우의 모습이 장애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천재적 재능을 갖지 않은 평범한 장애인을 다시 한 번 소외시킬 우려도 있다. 이렇게라도 장애인을 재현한 것이 큰 진전이라는 사실이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미디어는 과소 재현을 통해 소수자를 실제보다 적게 등장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지워 버리고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뿐 세상에는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https://www.youtube.com/watch?v=ji0w-8WOIhA>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

영국의 공영 방송 BBC는 출연자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며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출연을 장려한다. 2009년, BBC 어린이 채널 시비비스(CBeebies)에는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장애인 세리 버넬(Cerrie Burnell)을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켰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그가 처음 출연했을 때 일부 부모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항의했지만 방송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장애인도 감춰야 하거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BBC는 안면 장애인 앵커를 기용하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진행자를 출연시키기도 한다.